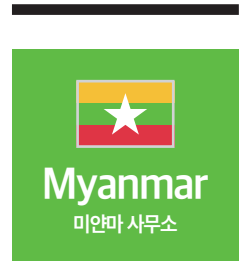


미얀마 유기농 시장 동향



높은 가격과 관련 인력 부족이라는 장벽으로 미얀마 유기농 시장은 아직도 태동 단계에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확산세로 미얀마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소매형 고급 슈퍼마켓과 도매형 슈퍼마켓은 유기농 농산물 판매대를 넓혀가고 있다.

미얀마 농축산관개부(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and Irrigation)는 2019년 초 “안전한 유기농 식품 생산 및 수출을 위한 국가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ASEAN이 제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마련됐으나 관련 매뉴얼 작성, 인증 주체가 될 기관 설립, 인력 훈련 시스템 구축 등의 이유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관련 기관 및 회사 관계자 인터뷰, 자료 조사를 통한 미얀마 유기농 관련기관 및 유기농 제품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기농 관련 기관

정부 가이드라인

미얀마 정부의 유기농 인증 관련 부서는 농축산관개부 농업국이다. 위에서 언급한 가이드라인(안)에 따라 유기농 농작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농업국에 신청을 할 수 있다. 농업국은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농지정리 첫 단계부터 수확단계까지 전 과정을 모니터 하고 최종 점검 후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농업국의 와나 툰 박사는 개별 인터뷰를 통해 “농업국은 현재 '농산물우수관리인증(Good Agriculture Practice, GAP)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유기농 가이드라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 농축산관개부 로고

유기농 인증제도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위해서는 국가 표준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필요한데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관련 미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유기농 인증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일부 민간 조직들이 유기농 인증 기관 라이선스를 신청했으나 아직 공식적으로 라이선스를 발급한 기관은 없다"고 전했다.

미얀마 정부가 2021년부터 정부 차원의 유기농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전까지 미얀마 농장 및 제품에 대한 유기농 인증은 관련 외국 기관이나 미얀마 민간 기구로부터 받을 수 있다.

민간기구

미얀마 농장, 제품 등에 대해 유기농 인증을 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기구는 국제유기농 운동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of Organic Agriculture Movements, 이하 IFOAM)이 있다. IFOAM은 미얀마 민간기관을 지원하고 있으며 개별적으로도 유기농 인증을 해주고 있다. 미국 농무부(USDA)도 미얀마 농산물에 대해 유기농 인증을 해주는 역할도 겸하고 있다.

미얀마 국내기관으로는 미얀마상공회의소(Union of Myanmar Federation of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UMFCCI) 산하 미얀마과일채소생산수출업협회(Myanmar Fruits and Vegetable Producers and Exporter, 이하 MFVP)가 대표적인 유기농 인증기구이다.

MFVP는 산하에 농가의 유기농 작물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미얀마유기농산물그룹(Myanmar Organic Agriculture Group, 이하MOAG)과 미얀마 유기농재배생산자협회(Myanmar Organic Grower and Producer Association, 이하 MOGPA)를 운영해 왔다. 2009년에 설립된 MOGPA는 IFOAM의 지원을 받고 유기농 인증서를 발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MFVP는 2011년 IFOAM의 지침에 따라 자체 유기농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주로 유기농 농장 인증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동안 유기농 농장에 대한 인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증은 단 한 건에 불과한데, 향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유기농산물에 대한 인증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Myanmar Organic Agriculture Group (MOAG)

농장에 대한 유기농 인증 사례로, MOGPA는 2016년 6월 나웅나뻘(Nyaungnapin) 농업단지 소재 농장, 와응안(YwarNgan) 소재 커피농장, 양곤 소재 쉐뵘산 므웨이(Mway) 쌀 및 버섯 재배 농가 등에 유기농 농장 인증



▲ MOGPA

서를 발급했으며 이들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합법적으로 GMS(Greater Mekong Sub-region) 지역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MFVP 회장은 개별 인터뷰를 통해 "MOAG와 MOGPA는 2018년 MFVP에서 완전 독립했으며 현재 MFVP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MFVP는 이 두 조직 독립 이후 '유기농 위원회'와 '인증주체'라고 부르는 조직을 신설했으며 향후 정부 유관 부서와 협력하며 인증 업무를 늘려갈 계획이다.

참고로 MOGPA도 독립된 기관으로 유기농 인증 업무와 인증 관련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유기농 시장 현황

향신료

Organic Agro Land(OGL)는 2013년에 설립된 미얀마 유기농 향신료 업체의 선두주자이다. 2003년 '인증받은 유기농 향신료'를 독일 회사에 수출하기 시작하며 사업이 확장됐다. 이 독일 회사는 OAL의 작물로 'GAP' 인증을 받았다. OGL은 미얀마 유기농 농장의 선구자이자 파트너사인 Phyto Kyaw Co., Ltd.(PKCL)과 함께 전국적으로 500개 농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Yogi Botanicals는 유기농 향신료, 식용류 및 벌꿀 공급 업체이다. 북부 미얀마 3개 마을 소재 300여개 농가와 파트너십을 맺고 유기농 생강, 고추 및 기타 향신료 생산을 위해 1,300에이커의 유기농 인증 농지를 임대했다. 고품질 제품 테스트 시설, 신선한 유기농 제품 건조를 위한 공기 건조 시설 및 훈련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USDA, IFOAM 등으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받았다.

Snack Mandalay는 2015년 8월에 설립됐으며 건조 농산물 및 분말 가루를 Three Stars



▲ Snack Mandalay사의 Three Stars

라는 상품명으로 판매하고 있는 식품 가공 회사이다. USDA의 유기농 인증을 받았으며 유기농 고추가루, 유기농 생강 가루 등이 주력 상품이다. 참고로 영국 국제개발국(DFID)은 2020년 1월 만달레이 지방의 향신료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이 회사에 대해 310만 달러를 투자를 발표했다.

커피

지니어스 산 하이랜드 커피 (Genious Shan Highland Coffee)는 2016년 USDA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받았고 2017년에는 EU의 유기농 인증을 받은 미얀마 대표적인 유기농 제품 생산 기업이다. 산쥬 외양안 농장과 만달레이 뻘우린 지역에 유기농 커피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지니어스 커피는 일본, 태국, 싱가포르, 캐나다 및 캄보디아로 수출되고 있다.



▲ Mount Victoria Coffee

마운트 빅토리아도 2016년 MOAG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받았다. 뻘우린 지역에서 재배한 원두를 일본, 호주로 수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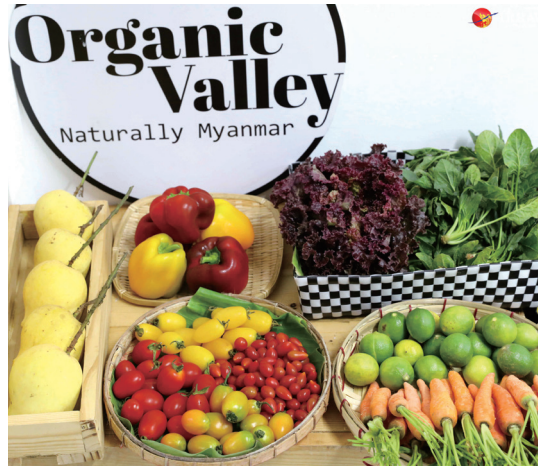
유기농 채소 공급 업체

City Farm은 2016년부터 유기농 과일 및 채소 생산을 시작했다. 유기농 인증은 MFVP로부터 받았으며 매년 갱신하고 있다. 샐러 드용 채소를 City Farm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으며 현재 미얀마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 체인인 City mart와 Market Place에서 판매 중이며 향후 수출도 계획 중이다.



▲ City Farm 제품

한편, UNI vege는 2016년에 설립된 수경재배 전문회사이다. 현재 계절에 관계 없이 연중내내 채소를 생산하고 있으며 Market Place와 고급 호텔 등에 공급하고 있다. 주요 소비자는 외국인들과 중산층 이상이며 현재 내수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일반 유기농 농장과는 재배방법 등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았으나 네덜란드 Global Gap Information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 Organic Valley

유기농 전문 판매업체 : Organic valley Myanmar

2019년 5월 설립됐으며 양곤에서 화학물질 제로 과일 및 채소를 판매하고 있다. 매장 오픈 당시는 6가지 채소만 판매했으나 현재 60여 종을 넘었으며 파용지, 뻘다야, 뻘우린, 양곤 등지의 농가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주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주문받으며, 유기농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함에 따라 오픈한지 6개월 내에 개별 고객 및 기업 고객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판매하는 제품들이 화학물질 제로라고 소개하지만 공식적으로 유기농 인증을 받은 것은 아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농산물 재배 초기 단계부터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변경해야 하고 그 절차가 복잡하며 인증 비용이 비싸기 때문이다. 참고로 USDA의 인증비용은 약 2,500달러이다.

Key Point

IFOAM과 FIBL이 공동 출간하는 '유기농산물의 세계' 2018년판에 따르면 세계 유기농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800억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미국이 389억 유로로 유기농 시장을 이끌고 있고 독일(95억 유로), 프랑스(67억 유로), 중국(59억 유로)이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얀마 유기농 시장은 아직 태동 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미얀마 경제가 재도약을 시작하게 되면 중산층 인구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기농 시장의 주요 진입 장벽인 가격과 제품 인식 제고를 극복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이다.